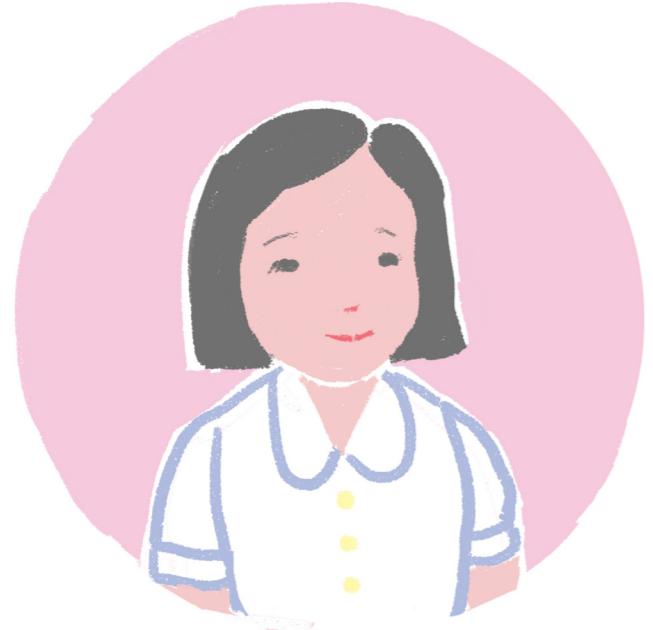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다녀오자.”

참어머님은 서울에 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서울 청파동 교회였어요.  
참어머님은 이곳에서 처음 참아버님을 만났지요.  
참어머님은 어머니와 함께 공손히 인사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예, 제 딸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요?”

참아버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아버님이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다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니?”

“한학자입니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구나!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어!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 한학자라는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참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 참어머님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꿈을 꾸었구나!”  
“어떤 꿈인네요?”



“흰 예복을 입은 여성들이 분홍빛 꽃을 들고 서 있는  
데, 네가 참아버님께로 가더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한곳으로 떨어지더라.  
몰려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곧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꿈인 것 같아요.”

참어머님은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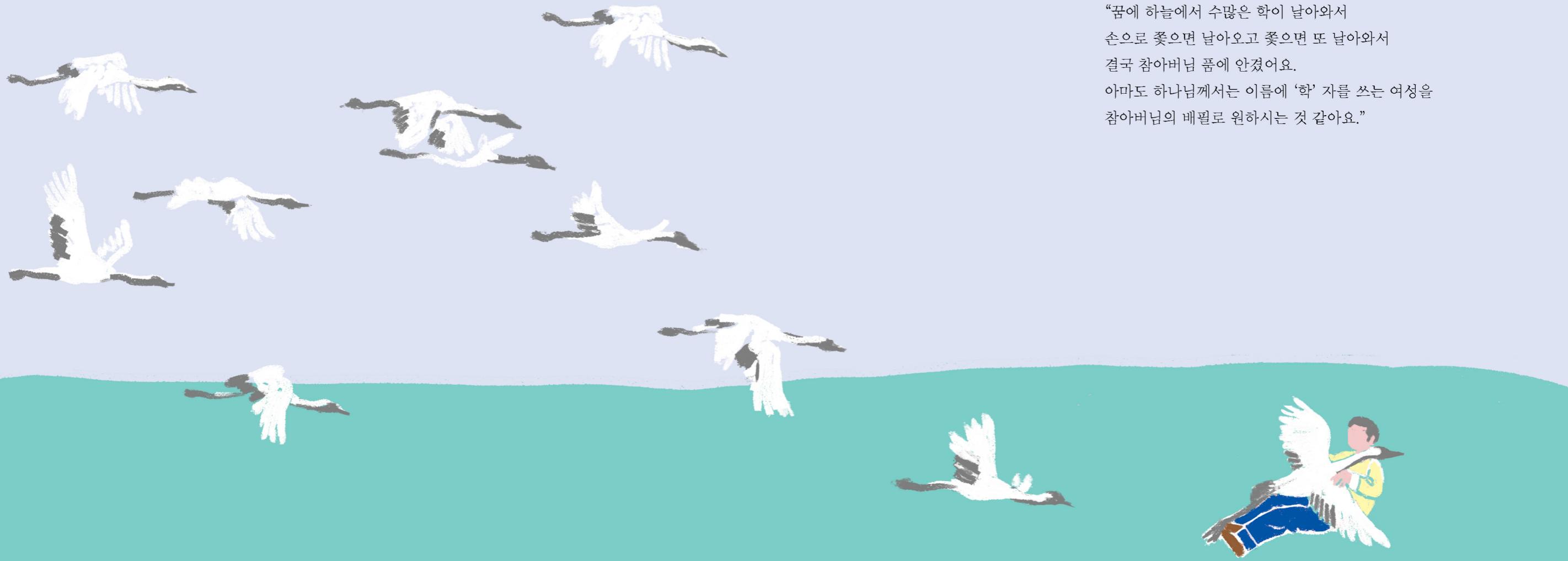


얼마 뒤 교회에서는 참아버님의 성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참아버님의 영원한 배필이 될 참어머님은 누구실까요?”

“온 인류의 참어머님이 되실 텐데,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시겠지.”

“큰 부자라서 참아버님을 잘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일 거야.”



교회 식구들은 참어머니가 되실 분이 누구일까  
많이 궁금해 했어요.

그러던 중 오랫동안 정성을 많이 들이셨던  
기도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꿈에 하늘에서 수많은 학이 날아와서  
손으로 쫓으면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와서  
결국 참아버님 품에 안겼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학’ 자를 쓰는 여성을  
참아버님의 배필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즈음 참어머님은 일요일이면 청파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전히 예의바르고, 총명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하는 곱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교회에 나오면 시선을 끌었어요. 참어머님은 말씀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국전도사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어머님은 어머니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